

국민안전과 감염병 감시체계 필요성



이윤태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우리는 MERS, 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귀한 교훈을 느꼈을 것이다. 이들 신종감염병은 보건·의료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이 출몰하면서 전 세계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바이러스, 세균의 진화는 인간이 갖고 있는 방어능력 기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법정감염병으로 6개군 79종을 지정하고 신고·감시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다양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감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현황 감시, 상시 역학조사 실시, 필요할 경우 긴급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발생은 국내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으로 바뀌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우리나라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한 공동 이슈이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단기적 급성위협 요소이다(표 1).

표 1. 보건·의료분야의 국민안전 요소 분류

구분	시설 및 기능측면	인구 통계학적측면
단기적 급성위협	의료기관 서비스 중단(전국 규모) 의약품 공급 장애(전국 규모) 혈액공급 장애(전국 규모) 대규모 감염병 발생 생물테러	조산, 신생아 관리
중·장기적 만성위협	응급의료체계관리 미흡 의료체계, 의료기술 대응 미흡 의료인 수급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성인병 관리

우리는 지난해 MERS, 금년에 C형감염, 지카바이러스, 콜레라발생을 통하여 감염병 감시체계의 중요성을 학습하였다. 학습효과가 자칫 크릭(CRIC)사이클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기본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염병관리의 기본 체계는 1) 지속적인 감시체계 가동, 2) 검역활동을 통한 해외유입 차단, 3) 실제 사례 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4) 실험실 진단체계 운영, 5) 환자 관리 및 교육·홍보, 6) 개인위생부터 백신접종에 이르는 예방활동, 7) 국제협력, 8) 전문인력 양성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 이상징후 감시는 감염병 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이번 호는 「감염병 이상징후 감시모형 개발」을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이동환 과장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감시체계 현황’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약제정책연구팀 김동숙 팀장은 실시간 의약품 사용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원석 교수는 ‘감염병 이상징후 감시체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감염병 감시체계 활용방안을 검토했으며 숭실대학교 수학과 심은하 교수는 ‘외국의 감염병 발생 예측 및 확산 모형 사례’를 통해 외국의 경험을 공유해주셨다. ✕

1) 크릭(CRIC)사이클은 위기도래(Crisis) 후 관리주체의 대응(Response)에 따라 상황이 개선(Improvement)된 뒤 자기만족(Complacency)에 빠져 다시 위기가 도래(Repeat)하는 상황을 경고하는 경영학의 위기재발론이다.